

‘방직산업 메카’ 역사 속으로... 광주 전방·일신 공장 이전

설비 현대화 등 생산 능력 늘려 옮겨 평동산단 이전·기존 부지 개발 추진
광주시와 공공 기여 규모 등 협상

일제 수탈의 아픔, 산업화 시기 여공들의 애환을 품은 전방(옛 전남방직)과 일신방직 공장이 이전한다.

광주 근대 산업문화 유산인 방직공장의 변화와 함께 토지 용도변경으로 생길 개발 이익, 공공 기여 규모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2일 광주시에 따르면 전방, 일신방직은 북구 임동 공장 부지 용도변경과 개발계획을 시와 협의하고 있다.

두 업체는 평동산단에 운영 중인 공장을 설비 현대화 등으로 생산 능력을 늘려 임동 공장을 옮기기로 했다.

일신방직 임동 공장 부지는 13만600



광주 임동공장 전경 /연합뉴스

여㎡다.

350여명이 근무하며 하루 5만6000kg 원사 생산능력을 갖췄다.

전방 임동 공장은 부지 15만5600여㎡로, 2017년 말 가동을 중단했다.

두 회사는 임동 공장 부지 29만1800

여㎡용도가공업용지에서 상업·주거용지로 변경될 경우 연구 개발 시설, 주상복합 시설, 역사 공원, 도로 등 기반 시설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된다면 공장 부지에는 아파트나 호텔이 들어설 수도

있다.

광주시에 공장이 도심에 자리 잡아 생긴 민원 등을 고려해 이전 필요성은 공감했다. 임동 주민 4238명은 분진, 석면 가루, 소음 등 피해를 주장하며 공장 이전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지난해 10월 광주시에 제출하기도 했다.

광주시는 일부 보완 사항을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내년 초부터 사측과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조건 없는 토지 용도변경은 특혜로 비칠 수 있는 만큼 땅값 상승액의 절반 가량을 공공 기여금으로 활용해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을 조성할 방침이다.

근대 산업유산으로 상징성을 가진 기존 시설을 일부라도 보존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광주시에 의뢰한 친일잔재 조사 용역

에서는 전방, 일신방직 공장 부지에 가칭 근대 산업박물관을 건립해 일제 수탈 역사를 담은 콘텐츠로 활용하자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도심 공장의 이전 필요성이 인정되는 만큼 조만간 공공 기여 규모와 방안 등 협상에 들어갈 것”이라며 “협상에만 2년이 걸린 다른 사례 등을 거울삼아 도시 계획적인 측면을 적절히 검토해 이전이 효율적으로 추진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동 공장은 1935년 일본방직업체가 설립한 공장이 모태다. 1945년 해방 이후 일본인들이 몰려가고 정부 소유 전남방직 공사로 출범했다가 1951년 전남방직 주식회사로 민영화됐으며 1961년에는 일신방직이 분할됐다.

/광주=김태수 기자 ts7080@metroseoul.co.kr



사상구가 부산시의 2019년 구·군 일자리 창출 실적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김대근 사상구청장(가운데 노란 상의)이 지난 11월 20일 모라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홀로머리신과 장애인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의 김장김치 담기를 하고 있다.

부산 사상구, 일자리 창출 최우수 기관

부산 사상구가 2019년 구·군 일자리 창출 실적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5000만 원의 상사업비를 받게 됐다. 금정구와 남구는 우수상을, 부산진구·사하구·영도구는 장려상에 각각 선정됐다.

2일 부산시에 따르면 일자리창출 실적 평가는 ‘일자리 창출 노력도 및 우수 사례’ 분야, 재정지원일자리 등 ‘일자리 창출 사업추진’ 분야, 취업알선 실적 등 ‘민간부문 일자리지원’ 분야, 일자리창출을 위한 ‘창업지원사업’ 분야 그리고 취업취약계층일자리창출 등 ‘공공부문 일자리창출’ 분야 등 5개 분야, 15개 항목을 평가했다.

시는 “이번 평가의 특징은 일자리창업과 소관 분야뿐만 아니라 청년·여성·

장애인·노인일자리 및 사회적경제분야를 담당하는 소관사업부와 공동으로 진행하여 구·군이 추진하는 있는 업무 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였고,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정량평가 위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또 “일자리정책의 성과 향상을 위하여 올해부터 신규로 추진 중인 사회적일자리사업 추진 및 부산시·구·군 협력사업인 부산 OK 일자리지원사업 등도 평가에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최우수상을 받은 사상구는 신발산업 혁신기술개발과 바이오 기능성 소재 개발 사업화 등을 위해 ‘2019년 풀뿌리 육성사업 추진’과 ‘팝업스토어 운영’, ‘기업체 틈새 배움터 운영’ 등을 추진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부산=최인택 기자 remark@

광주시, 친환경차 부품인증센터 2022년 개소

내년 3월 준공, 2022년 1월 개관
산단활성화·친환경차 발전 기대
인증·평가 장비 24종 구축 예정

광주시에 부지 매입을 시작으로 친환경 자동차 부품인증센터 건립 공사에 착수했다.

2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한국도지주택공사(LH)와 협의, 부품인증센터의 부지 매입 절차에 들어갔다.

시는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 공장이 들어설 빛그린 산단 내 2만9천916㎡ 부지에 360억원(국비 180억원·시비 180억원)을 들여 지상 2층 규모의 부품인증센터 건물과 인증·평가 장비를 구축할 예

정이다.

부지 매입비는 69억원이다.

시는 올해 2월 국토교통부 공모 사업에 선정된 이후 중앙투자심의 통과, 공유재산심의회 의결, 설계 착수 등의 행정 절차를 거쳤다. 내년 3월 센터 공사에 들어가 2021년 3월 준공, 2022년 1월 개관할 예정이다.

부품인증센터는 국가 차원에서 친환경 자동차와 부품의 공인인증·평가 등을 하는 국가 기관이다.

그동안 자동차 안전인증 국가 공인 기관은 경기 화성에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유일했다.

인증·평가 장비는 배터리 안전성 평가 장비 9종, 친환경 자동차와 배터리

등 고위험 부품의 충돌에 의한 폭발과 파손 등을 평가하는 충돌 안전성 평가 장비 7종, 충격 안전성 평가 장비 8종 등 모두 24종을 갖춘다.

시는 부품인증센터 유치로 최근 증가하는 소형 전기자동차의 충돌 부분에 대한 안전 인증을 빛그린 산단에서만 수행할 수 있어 산단 활성화와 친환경 자동차 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인공지는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 사업과 부품인증센터를 연계, 미래 자동차 기술 확보에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김태수 기자

함평內 생태공원, 내년 2월까지 임시 휴원

함평자연·양서파충류 생태공원 2곳

전남 함평군은 함평자연생태공원과 양서파충류생태공원이 동절기를 맞아 임시 휴원한다고 2일 밝혔다.

휴원 기간은 내년 1월부터 2월까지 두 달간이다. 지난 9월부터 통합 운영하고 있는 두 곳은 이번 휴원기간에 맞춰 수도시설 보온조치를 비롯한 월동준비에 들어간다.

또 각종 시설물 정비 사업도 함께 추진해 내년 3월 다시 개장할 계획이다.

지난 2006년 함평군 대동면 운교리 일원에 조성한 자연생태공원은 나비·곤충 표본전시관 등 7개의 전시시설과 반달가슴곰 관찰원 등 16개의 관람시설, 전망대, 벽천폭포 등 9개의 편의시설이 갖춰진 전국 대표 자연생태체험 학습장이다.

지난 2008년에는 환경부로부터 서식지 외 보전기관으로 지정되는 등 풍란, 한란, 지네발란 같은 멸종 위기종을 개체 증식을 통해 보전하고 있다.

지난 2014년 함평군 신광면 학동로 일원에 국내 최초로 문을 연 양서파충



양서파충류생태공원 /뉴시스

류생태공원은 8만5000㎡의 부지에 연면적 2673㎡ 규모의 별관까지 갖춘 국내 최대 규모의 양서파충류 전문 생태공원이다.

현재는 국내외의 70여 종, 190여 마리의 양서파충류를 전시하고 있으며 뱀감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상시 운영하고 있다.

함평군 관계자는 “관람객 감소에 따른 시설운영비 절감과 동면이 필요한 동물들 휴식차원에서 불가피하게 내년 1~2월 임시 휴원하게 됐다”며 “군 홈페이지와 주요 시가지 일대에 공원 휴원 관련 플래카드를 게시하는 등 관광객들이 헛걸음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나성주 기자 nsj3983@

목포해수청

강진마량항 물양장 완공
(정비공사 2구간)

국가어항인 전남 강진 마량항 정비공사 2구간 물양장 104m가 완공됐다.

209억원이 투입될 마량항 정비공사는 2017년 5월 착공, 2022년 5월 완공 예정이다.

1구간은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50억원을 투입해 물양장 150m를 확장했다.

이번 2구간은 물양장 104m로 40억원을 들여 완공됐다.

마량항은 1971년 국가어항으로 지정돼 1984년 기본시설계획을 수립한 후 1994년까지 방파제 790m, 물양장 466m 등의 어업 활동에 필요한 기본시설을 완공했다.

그러나 최근 협소한 배후부지에 많은 관광객이 찾아 목포해수청은 2017년부터 마량항 정비공사를 추진해 오고 있다. 장귀표 목포해수청장은 “앞으로도 마량항이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미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비공사의 원활한 추진과 조속한 완공을 위해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오늘의 날씨

12월 3일 (화)
음력 : 11월 7일

수도권 날씨
-4 ~ 5°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해돋이 / 07:29 | 해질 / 17:14

백령도 3/7

파주 -7/5

서울 -4/5

인천 -3/6

수원 -3/5

평택 -6/5

연천 -8/5

동두천 -7/5

가평 -8/4

양평 -7/5

용인 -3/5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